

# “시·그림으로 이어온 삶, 내 안의 억압들이 터지는 느낌”

황신애 작가 시화전 ‘이별은 나중에 온다’...오는 18일부터 금봉미술관

‘파란 달팽이’ 이후 9년 만...시 56편·그림 15점 담은 신간 출간 기념 신체적 제약 딛고 피어낸 창작 열정...오랜 견딜과 짙은 반복의 산물



황신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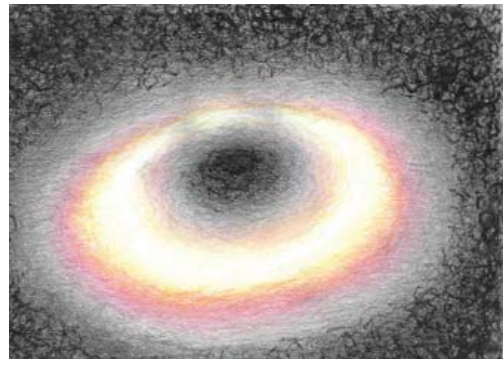
다발성경화증을 앓으며 창작을 이어온 황신애 시인이 시와 그림을 함께 선

보이는 전시를 연다. 신간 ‘이별은 나중에 온다’ 발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3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책자에는 시 56편과 수필 4편, 색연필 그림 15점이 실렸다. 2017년 두 번째 시화집 ‘파란 달팽이’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작업이다.

황 작가는 2002년 방송대 문학상에서 시 ‘섬진강’으로 가작에 선정됐으며, 2015년 시화집 ‘모로’를 출간했다. 2017년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운문부 대상, 2018년 산문부 우수상도 받은 바 있다.

작가는 2003년 다발성경화증 판정을 받은 이후 재발과 치료를 반복하며 증증장애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사지 마비로 왼손 일부 기능만 남



‘불빛’

아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시는 머릿속에 문장을 외운 뒤 왼손 검지로 자판을 두드려 완성한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가는 과정은 그의 작품 전반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신체적 제약과 시간의 축적이 맞물리며, 언어와 이미지 모두에 밀도 있는 표현을 형성한다.

그의 시 ‘젓갈’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곶죽이 된 몸으로 형체도 없이/꼭내린 것도 모자라 고약한 냄새로 견뎌야 하는/나도 젓



‘해저’

같이 되고 싶은 것이다’라는 구절은 자신의 처지를 직시한 언어들.

작가의 그림 작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다. 연필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에서 4B 연필과 색연필을 사용해 작업을 이어왔으며, 한 작품당 수만 번의 선을 겹쳐 완성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침대에 누운 자신의 몸과 희생자들을 동일시하며 작업을 이어간 것이 계기가 됐다.

연필과 색연필만으로 화면을 채워가는 작업

방식은 신체적 제약 속에서 선택된 것이지만, 반복되는 선과 층위는 화면에 독특한 밀도와 질감을 형성한다. 이는 작가의 감각과 시간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해당 책은 누워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가로매기 방식으로 제작됐다. 책에 수록된 15점과 전시에 선보이는 20점의 작품은 자화상과 제주 바닷가 풍경 등 작가의 내면을 반영한 이미지들로 구성됐다.

책자는 텀블렉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마련했다. 질병으로 인해 창작과 출판 과정 모두에서 제약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독자와의 연결을 통해 작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이다.

전시 개막식과 작가 사인회는 18일 열린다.

황신애 작가는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저의 예술적 삶이 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고 비장애인들에게 실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현실과 허구의 경계 넘어 존재의 의미를 묻다

광주 리아트센터 오는 10일까지 이형우 기획 초대전 ‘VOYAGER’展

인간의 존재와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이 회화로 펼쳐진다.

광주 리아트센터가 오는 10일까지 이형우 작가 기획 초대전 ‘VOYAGER’를 선보인다.

전시는 대표작 ‘VOYAGER’를 중심으로 300호 대작 ‘최후의 농담’, 200호 규모의 ‘동물농장’ 등 총 25점의 회화와 드로잉으로 구성된다.

그의 화면은 익숙한 형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비틀린 구조를 띤다. 인물과 동물, 사물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장면을 이루지만, 명확한 이야기로 수렴되지는 않는다.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 의도적으로 왜곡된 형상은 관람자가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 감각으로 반응하도록 이끈다.

화면 속 장면들은 논리적으로 정리된 결과

기보다, 삶의 과정에서 축적된 감각과 태도의 흔적이 가득하다. 작가에게 회화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아니라, 세계를 통쾌해는 시간의 축적이자 존재의 방식으로 읽힌다.

대표작 ‘최후의 농담’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업으로, 종교적 상징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해체해 인간 존재의 양면성과 모순을 드러낸다. ‘동물농장’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뒤섞으며 사회적 관계와 존재 구조를 은유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진행형 전시’로 운영된다. 작가는 매주 새로운 드로잉을 제작해 전시장에 추가하며, 관람객은 방문 시점마다 다른 장면과 감각을 마주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Voyager’

그림 작품을 모집한다.

음악 분야는 중·고등부(14-19세)와 성인부(20-59세)로 구분되며, ‘국립광주과학관’ 명칭이 포함된 가사를 활용해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로고송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과학관 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6월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 전국민 AI 창작 경진대회 연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이 전 세대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 기반 창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 전 국민 인공지능(AI) 창작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11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은 물론 성인과 노

년층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대회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미술과 음악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미술 분야는 초등부(11-13세)와 노년부(60세 이상)를 대상으로 ‘과학관’, ‘과학’, ‘미래 세상’,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기반

## 서양화가 김상은 ‘아삭아삭 사과’ 무등미술대전 문체부장관상 수상

제42회 무등미술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에 서양화가 김상은의 작품 ‘아삭아삭 사과’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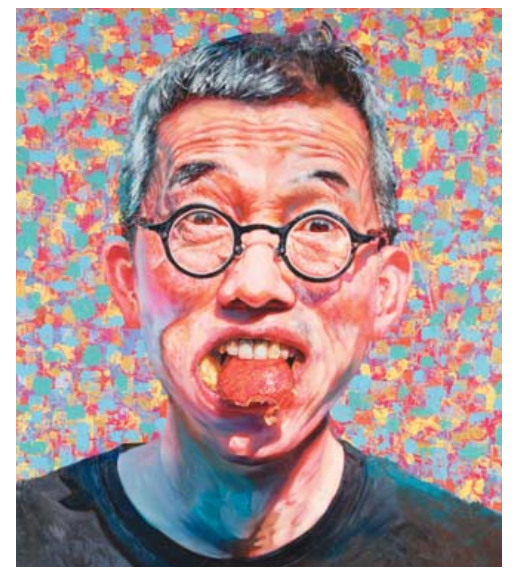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호배)는 5일 “제42회 무등미술대전 심사가 지난 2일 광주비엔날레관 전시관에서 열린 가운데 올해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천82점이 출품돼 여전히 높은 관심과 참여 열의를 보였다는 평가다.

전체 입상작은 문화체육부장관상 1점을 비롯해 대상 7점, 우수상 28점, 특선 30점, 입선 687점 등 총 1천114점이다. 다만 관화와 조각 부문에서는 대상작이 선정되지 않았다.

대상은 ▲한국화 김시현 ‘이면의 조음’ ▲문인화 권희선 ‘세월은 꽃향기에 묻혀’ ▲수채화 최복 ‘넙 그림자’ ▲공예(섬유) 박소정 ‘흐름’ ▲서예(한문) 김서정 ‘김효일 선생시’ ▲맛글씨 손영미 ‘꽃피울 내 인생아’ ▲사진 신호선 ‘천국의 계단’이다.

김재일(한국화가) 심사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시도와 동시대적 감각이 두드러졌다”며 “각 분야에서 전통적 기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표현 방식



김상은작 ‘아삭아삭 사과’

을 모색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부문에서 출품 수 감소와 특정 장르 편중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작품이 균형 있게 출품되길 바란다”며 “무등미술대전이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